

KCMI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남 재 우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Contents

KCMI
KCMI
KCMI

- I.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II. 주요국 해외사례**
- III. 연금화 및 연금소비자 보호 강화**
- IV. 사적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가입측면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현황

- 퇴직연금은 사업장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특히 영세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형성
 -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3%
 -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
- 개인연금은 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아 은퇴 이후 노인빈곤 양극화 가능성
 - 2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소득자의 적격개인연금 가입률은 1.2%인 반면 8천만원 초과 계층의 가입률은 66.2% 수준
 - 연령별로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40대 가구(39.0%)에서 가장 높았으며, 독신가구(32.1%)보다 부부가구의 가입률(37.7%)이 높게 나타남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운용측면

-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7조 685억원(GDP의 약 7%), 2014.12월 말)로 전년 대비 27.0% 증가(84조 2,996억원, 2013.12월말)
-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舊개인연금저축 포함)의 적립금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01조원 규모이며,(2013년 대비 12.3% 증가)

퇴직연금시장 규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보도자료)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12월말		2014년 12월말		증감 (B-A)	증감률 (B-A)/A	비 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은 행 (연금저축신탁)	136,999	15.3	144,632	14.3	7,633	5.6	수탁잔액 기준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56,529	6.3	65,046	6.5	8,517	15.1	순자산액 기준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477,871	53.2	534,540	53.0	56,669	11.9	책임준비금 기준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200,196	22.3	233,370	23.1	33,174	16.6	
기 타 1)	26,407	2.9	30,849	3.1	4,442	16.8	
합 계	898,002	100.0	1,008,437	100.0	110,435	12.3	

주 : 1) 공제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2) 연금저축 상품 비교는 <부표 1> 참조

자료: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5.4.21)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수령측면

- 퇴직연금: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대부분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약하는 해약률이 매우 높음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단위: 명, 억원, %)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 계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2013년 4분기	26,256 (91.6)	3,643 (99.0)	2,412 (8.4)	35(1.0)	28,668 (100.0)	3,679 (100.0)
2014년 4분기	32,103 (95.2)	4,675 (98.5)	1,611 (4.8)	69(1.5)	33,714 (100.0)	4,745 (100.0)

주 : 분기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 균	95.5	86	80.2	72.4	52.4

자료: 금융위원회(2014), 류건식(2014)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세제측면

-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 정도로 낮은 편임
 - 영국 78,500달러(9천만원), 미국 16,500달러(1천 9백만원) 소득공제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 퇴직연금(DC형, IRP형)에 본인부담 납부액(연간 300만원)에 대한 추가적 세액공제 허용하였으나, 연금저축은 제외됨
-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퇴직계좌냐 저축계좌냐의 차이가 존재함
 -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시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비과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음
 - 영국은 저소득층이 적격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본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받게 될 혜택만큼을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로 환급해 주고 있음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가입자 보호 및 규제 측면

- 사적연금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연금 소비자 보호가 취약함
 -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특수목적 가진 연금 상품이 일반 금융상품과 무차별하게 관리·규제되고 있음
 - 연금상품은 판매·운용·해지, 수수료·보수체계, 공시방법 등에 있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구분될 필요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유사성격의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약관심사 주체가 금융 권역별로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업무가 곤란한 경향이 있음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리를 통해 통합운영에 따른 수탁자 이익의 침해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동일사업자가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
 - 번들형(bundle)은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이해상충 관리에 약점이 있음
 - 가입자 보호를 위해 번들링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 우리나라 투자교육 및 노후설계관련 교육 미비
 - 디폴트옵션제도 도입필요성 증대
 - 공·사 연금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설립 필요

D 주요국 해외사례

❖ 영국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

-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NEST 제도(DC형 개인연금계좌(Personal Accounts)로서 자동가입(Opt-Out)을 전제로 2008년 Pension Act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실시
- 1999년 개인연금의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도입

❖ 호주의 사적연금은 강제퇴직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으로 구분

- 강제퇴직연금은 강제가입 DC형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55세 이후 수령(2025년까지 60세로 상향조정 예정)

❖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은 1974년 ERISA 제정 이후 체계화되고 강화됨

❖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이 발달한 국가임

- 개인연금은 생명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0년 연금개혁에서 인증제 개인연금이 도입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됨

❖ 캐나다의 사적연금제도에는 등록제연금(Registered Pension Plans, RPPs)와 등록제 퇴직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이 있음

- 등록제연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발적 퇴직연금제도 (1908년)
- 등록제퇴직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의 개인퇴직저축(1957년)

주요국 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시장 현황 및 특징 -OECD(2013)주요국 대상

- (가입 측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으로 퇴직연금 및 자발적 사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56.4%, 35.2%)임

OECD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제도 가입률

(단위: %)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한국 (‘09)
퇴직연금	3.3	7.5	0	30.0	41.6	56.4	18.8
개인연금	15.7	6.9	27.1	11.1	22.0	35.2	12.2
전체	18.6	14.0	27.1	43.3	47.1	71.3	-

주 : 1) 독일, 스웨덴을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임

2) 독일은 사회보험기여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률이며,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 대한 가입률임

3) 한국은 OECD, pension at a glance(2011). p173에서 발췌

자료: OECD(2013)

주요국 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시장 현황 및 특징 (2013년)

- (수급 측면: 소득보장) 사적연금 순연금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44.2%), 영국(40.2%)순임

OECD 주요국의 공·사적 순연금대체율

(단위: %)

국가	스페인	이태리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공적연금	80.1	78.2	33.7	38.0	44.8	55.3	40.8	48.7
사적연금	-	-	21.5	40.2	44.2	21.1	-	-

주 : 1) OECD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현실적 수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영국, 미국, 독일의 사적연금은 자발적 DC이며, 스웨덴 사적연금은 강제사적연금을 의미

자료: OECD(2013)

- (수급 측면: 연금화) 사적연금에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선택 비율은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Opt-Out 실시 필요

연금화 및 연금소비자 보호 강화

❖ 가입측면 - 가. 연금세제 지원확대

- (개선 1) 노후준비가 시급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개선 2) 연금저축에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비과세 혜택도 부여
- (개선 3)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행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에서 상향조정(예: 2,000만원)하여 연금으로의 수령 장려

❖ 가입측면 - 나. 사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 (필요성) 사적연금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적은 재정 부담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 (개선) 저소득층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미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이 자기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 제공

연금화 및 연금소비자 보호 강화

❖ 연금화측면 – 가.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계

- (개선 필요성)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근퇴법상 자산운용의 제약이 큼
- (단기적 개선)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 시 세제혜택 유지
- (장기적 개선)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

❖ 연금화측면 – 나.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 연금 형태의 수급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방식 허용
- 영국의 Drawdown Pension: 은퇴자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일시금 인출(종신 연금액의 150%), 단기연금 구입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 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금화 및 연금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보호

— 사적연금법 제정

-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연금사업자 관리, 연금소비자 보호, 연금화, 연금상품 등과 관련한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
- 다층노후소득보장(공적+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적연금법 도입

— 퇴직연금의 수수료체계 및 공시 개선

- (수수료 체계)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변액보험) 판매사 역할을 겸하는 경우 별도 판매보수 수취를 금지해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
- (공시) 사업자별 수익률을 비교 가능하도록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수익률과 사업자가 추천하는 운용 전략별 수익률 공시

연금화 및 연금소비자 보호 강화

❖ 연금자산의 관리운용

— 관리운용 개선목적

- 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1:1로 운용지시를 받고 관리함에 따라 비용구조상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움

— 개선방안

- 사적연금을 개인이 자기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업자가 통합관리
- 집합운용방안 : 집합운용 사적연금(Collective Individual Pension: CIP)은 모든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pooling하여 운용·연금화
- 디폴트제도 도입 방안 : 디폴트옵션 등의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사적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 필요성

- 개인형 사적연금의 한계
 -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복잡화, 고도화 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생태계 발전흐름과 배치됨
- 미래재정부담
 - 사적연금의 관리비효율에 따른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연금화율은 근로능력이 소진된 노후세대의 소득 불안과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복지재정 부담으로 작용

❖ 개선목표

- 관리운용체계 개선의 기본 목표는 수익률 안정과 연금화의 확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연금자산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연금자산 운용에서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것임
- 연금자산 운용효율 제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운용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함
- 거래비용 절감: 거래비용을 낮추면서도 최적자산배분을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개인형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

사적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 기본방향

-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향은 연금자산 운용방식과 운용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방식 관련해서는 해외사례에서처럼 합동운용(폴링) 방식과 지금처럼 개별성(계약)과 자기주도성(투자)을 유지하는 개별운용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운용 지배구조는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계약형과 기금형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개인연금사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자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구분 기준임

관리운용체계 대안

	합동운용	개별운용
계약형	계약형_폴링	계약형_디폴트
기금형	KCP_폴링	KCP_디폴트

- 각 대안들을 거래비용과 운용효율 면에서 평가하면 기금형_폴링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방안임
- 적용범위는 개인형 사적연금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IRP 적용을 55세 은퇴 전 연금자산 축적단계와 은퇴 후 인출(연금화)단계 모두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근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연금화 단계에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함

관리운용체계 개선 – 합동운용(pooling)

❖ 기본구조

- 합동운용은 모든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풀링하여 운용 및 연금화하는 방안
-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개별 운용하는 기존의 개인연금이나 IRP와는 다른 운용 구조임

❖ 연금자산 적립과 인출 통합관리

- 개인형 사적연금의 가입 축적단계부터 인출단계까지 포괄하여 구축하는 것이 장점이 있음
 - (축적단계) 장기적 자산배분을 가능케 하여 적정위험자산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
 - (인출단계) 인출과 축적이 분리되어 축적자금을 인출한 후 개별적으로 annuity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annuitization 가능

❖ 해외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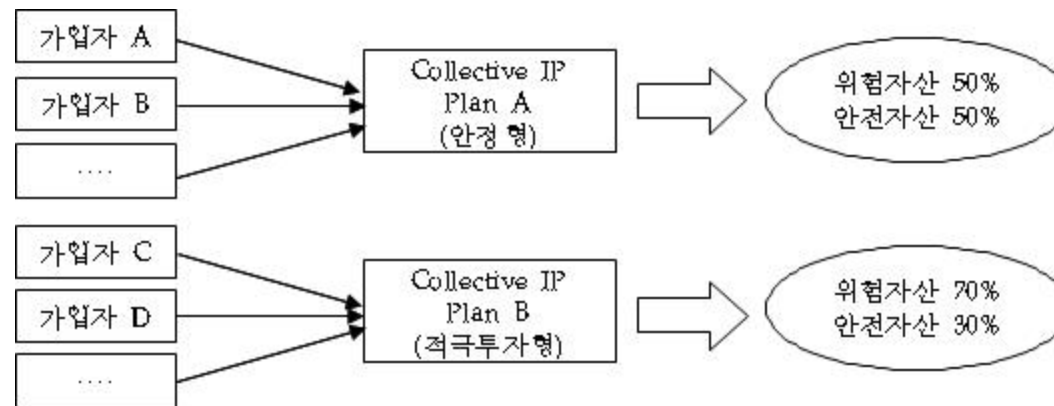
- 합동운용은 전세계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을 순수 DC에서 혼합형 DC로의 전환 혹은 정책 논쟁을 야기하는 중요한 경제적 동인임
 - 실제 영국 RSA(2012)에 따르면 CDC는 IDC에 비해 총 37%의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됨

관리운용체계 개선 – 합동운용(pooling)

❖ 합동운용에서 연금자산 운용

- 상품다양성: 집합운용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을 설계할 수 있음
- 크레딧활용: 개별 가입자의 자산을 단순 풀링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전통적인 CDC 스킴을 활용하는 방안
- 최저수익률 문제: 최저수익률 보장 여부에 따라 CIP(Collective Individual Pension)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 가능

Collective IP 자산운용 예시: 단순풀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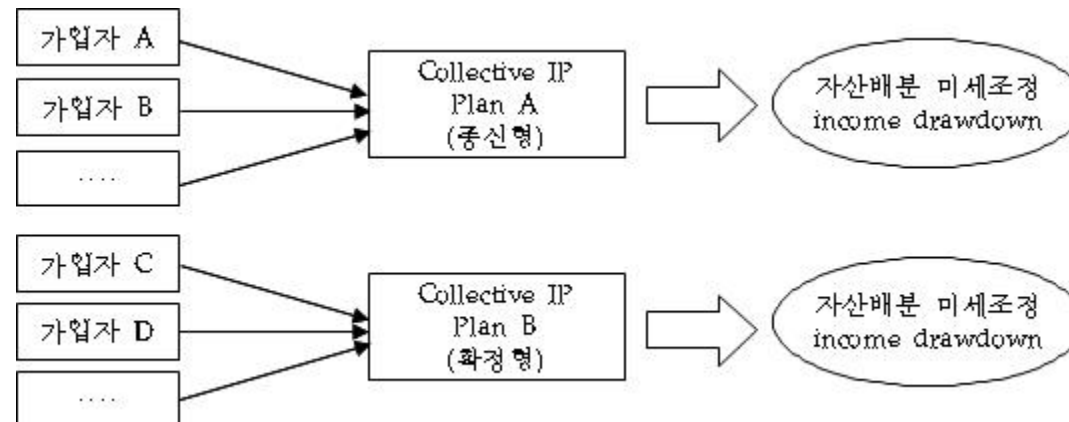


관리운용체계 개선 – 합동운용(pooling)

❖ 연금화 방안

- 연금화는 축적단계와 연계하여 집합운용 IRP가 자체적으로 annuity를 제공하는 방법과, 인출단계에서 금융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연금가격 합리화) annuity를 연금 플랜에 내재하는 경우 시장 경쟁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연금화율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적 annuity에 비해 역선택을 줄임으로써 가입자에게 annuity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점이 있음
- (Default annuity) 연금화는 가입자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보다 종신행과 확정형 등으로 단순화한 default annuity 제도를 검토할 필요

CIP 연금화 예시



관리운용체계 개선 – 합동운용(pooling)

❖ 합동운용폴의 운영(연금사업자)

- 합동운용 개인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연금사업자는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계약형_폴링 방안)과 새로운 지배구조를 인가 요건으로 하여 별도의 기금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기금형_폴링방안)이 있음

계약형 및 기금형 폴링방안 장단점

	계약형 폴링 방안	기금형 폴링 방안
장점	현행 계약형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금자산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기존 연금사업자와의 갈등 및 조정비용이 매우 작다는 장점이 있음	대규모 자산운용그룹 등이 새로운 운용지배구조 아래 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 시장구조와 경쟁 질에 상당한 변화 요인. 2017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중장기 제도 변화 요인은 개인형 연금제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
단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연금사업자 단위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형 지배구조에 따른 연금가입자 보호 문제 등 운용효율 제고에 한계가 존재	기존 사업자와 갈등에 따른 제도 도입 비용 증대, 지배구조 유지비용(고정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critical mass 달성이 중요

– 제도개선사항

- 합동운용(폴링)이 가능한 vehicle 마련
- 합동운용 개인연금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 마련

관리운용체계 개선 - 개별운용

❖ 개별운용방안

- 구조

- 개인형 사적연금의 자기주도(self-directed) 성격을 유지하면서 운용효율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이해
- 운용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개인형 연금제도 틀 내에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운용

- 선진국에서는 주로 디폴트옵션을 통해 개별운용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동일한 구조를 개인연금으로 동일하게 확대 적용 가능
- 미국은 시장 자율로 도입하던 디폴트상품을 2006년 법제화하여 면책조항을 두면서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디폴트옵션의 시장 활용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입자 주도의 사적연금 성격을 감안할 때 사업자간의 퇴직연금시장 경쟁은 디폴트옵션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음

국가별 자동운용상품제도 활용 현황

국 가	활용 비중	국 가	활용 비중
미국	80%	스웨덴	92%y
영국	70%	칠레	60%
호주	43%	멕시코	99%

관리운용체계 개선 – 개별운용방안

❖ 개별운용방안

- **연금화:** 개별운용 틀 내에서는 annuity를 자산운용과 직접 연계하여 내재화하기 어려울 것이며, 축적단계가 끝난 후 개별 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금을 구입하는 방식과 운용단계에서 일부 annuity를 디폴트옵션에 내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사업자:** 연금사업자는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디폴트옵션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계약형 디폴트 방안)과 별도의 기금사업자를 허용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별도의 기금사업자에게 개설하는 방안(기금형 디폴트방안)이 있음

계약형 및 기금형 디폴트방안 장단점

	계약형 디폴트방안	기금형 디폴트방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계약형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폴트옵션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자산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존 연금사업자와의 갈등 및 조정비용이 작은 장점이 있음 · 사업자간 경쟁으로 다양한 디폴트옵션 등장 → 경쟁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수탁자책임 충실, 디폴트옵션상품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운용효율 제고 효과가 계약형 디폴트보다는 큼 · 디폴트옵션에 대한 감독당국 관리와 시장에서 평판관리가 보다 수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에 따른 운용효율(규모경제, 지배구조 개선)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음 · 중소 사업자 난립과 디폴트옵션 경쟁으로 손실 분쟁 발생시 연금 시장 전체 신뢰 약화 가능성(→ 적격사업자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자와 갈등에 따른 제도 도입 비용 증대. · 다만, 2017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중장기 제도 변화 요인은 동 방안에 대해 우호적임

관리운용체계 개선 – 개별운용방안

❖ 개별운용 제도 개선 사항: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 도입(근퇴법 개정), 디폴트연금 도입(근퇴법, 감독규정)
- 개인연금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사적연금법 제정 혹은 개별법 개정

❖ 개별운용방안의 적용: 개인연금종합계좌

- 개념: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저축계좌(ISA)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개인연금 종합계좌(IPA) 도입
- 구조
 - 연금계좌 대체 : 중도인출, 포트폴리오 조정, 계좌이전, 계좌승계
 - 운용방식 다양화
 - default annuity 연계
- 장기비전: 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종합계좌는 연금저축계좌는 물론, 퇴직연금 계좌 중 IRP 계좌를 포괄하는 연금계좌로 발전할 수 있음

End of Documents